

Robert Vannoy 박사 , Kings, 강의 12

© 2012,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및 Ted Hildebrandt

역사적 설화를 설교하는 방법

역사적 설화 설교에 관하여

나는 우리 모두가 설교를 위해 역사적인 이야기 본문을 취한다면 설교에서 단순히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설교가 단순히 다시 말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공식화합니까? 더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우리의 소망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이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의견을 위한 구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 두신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인 본문에 대해 설교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역사적 본문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교훈적인 본문이나 다른 종류의 본문에 대해 설교하는 것보다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헌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시간적, 문화적 맥락에서 오랫동안 동떨어진 사람과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는 성경 이야기에 묘사된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맥락화되거나 번역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역사적 격차를 어떻게 메울까요? 당신은 우리와 매우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고대 문헌을 적절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개신교 개혁 이전에는 우화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아마도 당신은 그 방법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를 영화화하여 이야기의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대신 그들은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 사실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그들이 전달하는 영적 진리는 초점을 맞추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우화적 방법의 예: 창세기 24장 그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창세기 24장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중 하나가 아니지만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 24장을 보고 그 이야기의 중요성이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 우화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방법과 그 방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삭이 자기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신부, 리브가로 대표되는 교회.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확보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교회 구성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설교자입니다. 리브가가 날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길었다는 것은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길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물을 길지 못하는 낙타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취하여 거기에 일종의 영적인 중요성에 대한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그런 종류의 접근 방식이 성경 주석,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읽는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읽는 것이 실제로 "

아이소게시스(eisogesis)" 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읽히는 내용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읽을 수 있는 진리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을 해당 본문에 배치하는 것이지 본문이 자체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미나 중요성을 얻기 위해 역사적 서술과 함께 우화적 방법을 사용할 때 실제로 하는 일은 서술의 사실 자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더 깊고 더 높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지만 그 자체로는 거의 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범적인 설교와 구속사적 설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몇 년 전 네덜란드에서 신학자들 사이에 설교에서 역사적 서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에서 당신은 한편으로 "모범적 설교" 라고 부르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이야기를 사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범적 이거나 예시적인 설교인데, 그것은 "구속적-역사적 설교"라고 불리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용어는 설교에서 역사적 서술을 다루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한편으로는 예시적이거나 모범적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적인 역사적 설교입니다. 모범적인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를 담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접근 방식에서는 구약의 다양한 인물들의 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예로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이 행한 좋은 일들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처럼 되어야 할 본보기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설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하고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창세기 24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을 보내고 그 방법, 즉 모범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일부 사람들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예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몇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기 위해 하란으로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둘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의 또 다른 요소는 종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길러 오는 소녀가 물을 달라는 표징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이 사람이 그 소녀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모범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포함하여 기도의 문제여야 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성경적 원칙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이 구절에서 메시지를 얻는 방식인가?

이 장의 세 번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딸들이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이삭의 결혼 이야기에서 경건의 실천, 특히 자녀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창세기 24장과 같은 이야기에 대한

모범적이고 예시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모범적인 설교

에 대한 바노이의 주의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유형의 설교, 즉 의미나 중요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방법에 반대해 왔으며 그 반대의 근거는 몇 가지입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통역사가 직면하게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창세기 24장과 관련하여 오늘날 동료나 소녀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동료나 소녀가 주님에 의해 그의 파트너로 의도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주님의 표징을 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소유한 지금 그러한 특별한 계시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다고 오히려 단호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적절한 계시와 지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표지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본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판단을 포함하며 그러한 판단은 텍스트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해요. 그래서 그 방법에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유형의 설교는 인간중심적이라는 뜻의 인간중심적 설교라고 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anthropos* 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것은 신 중심,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입니다. 그런 유형의 설교는 인간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초점의 중심이며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대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설교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 방법은 아주 쉽게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설교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접근

방식에서는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바울 등의 다양한 성경 인물을 기준으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측정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들의 긍정적인 특성을 따라야 하고 부정적인 특성을 따라서는 안 되는 본보기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하나님 자신이 계시와 구원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역에 충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중심적이라기보다 인간중심적이다. 이런 식으로 구절을 다루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전능하신 행적에 대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와 구원을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행위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로 하는 일이 아닌가?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에 구원을 가져오셨는가에 대한 구속사가 아닌가? 따라서 꼼꼼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또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유로 모범적 설교라고 불리는 것에 반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구속적 역사적 설교라고 불리는 것을 옹호해 왔습니다.

구속적 역사설교 구속적 역사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일차적으로 강조하는 설교이다. 이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구속의 역사인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 이상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상 하나님이 하신 일과 다양한 개인의 삶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위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시화되는 역사이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가리키는

역사이다.

우리가 성경 본문과 이러한 역사적 이야기를 읽을 때, 그리고 설교할 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설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의 중요성은 이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발견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역사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기초를 발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신앙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행동의 지침이 되기보다는 신앙의 기초로서 정말로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에 관한 한 이 역사에서 배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역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

이제 창세기 24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4장의 구속사적 관점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볼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들이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이 계수될 것임이니라. 이삭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의 약속의 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며, 종인 아브라함이나 리브가가 아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결혼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 순종, 기도 생활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장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장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우리가

그 점을 관찰할 때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을 섬기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적 역사적 접근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서술에서 예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관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충실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종류의 관점은 구속사적 접근이 본문에 가져오는 관점입니다.

모범적이고 구원적인 역사: 다차원적 접근

나는 이 두 가지 접근 방식 사이에 본질적인 갈등이나 모순이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나 모순을 찾는 방식으로 그것을 설정했습니다. 당신은 한 가지 방법으로 설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설교합니다. 예시적 방법이나 구속적 역사적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며 이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방법 사이에 본질적인 갈등이나 모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예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우리가 주어진 역사적 이야기에서 끌어내는 예를 분리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적 역사적 맥락에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예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 서술된 사건의 장소와 기능, 구속사의 움직임에서 서술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의 역사적 서술은 서로의 관계와 구속사 내에서의 통일성에서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초점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범적인 방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성경 역사의 중심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점은 그 전파 방법이

그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경의 역사에서 예와 예시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사적 관점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관심을 갖는다. 왜인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주어진 이야기를 구원의 역사적 맥락에 넣어야만 왜,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부분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역사적 서술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이야기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는 그것들이 단순히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역사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적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적 이야기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의 교리적 부분과 역사적 부분 그것은 성경의 교리적 부분과 성경의 역사적 부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는 교리의 기초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장사지냄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속죄의 정당화 교리를 얻습니다. 그 역사는 교리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성경의 역사를 단지 예시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설명될 수도 있지만 역사는 단지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이상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부분을 단지 예시로만 여긴다면, 묘사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뿌리를 둔 신앙 – SR 드라이버 카운터 예시 SR 드라이버의 창세기 해설은 가부장적 서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제로 역사적인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대중적인 공상과 장식으로 인한 것인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중요하고 실제적인 의미는 그것이 나타내는 성격의 유형과 그것이 엄밀히 역사적이든 아니든 그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도덕적, 영적 교훈에 있습니다. 족장들은 신앙과 선함의 모범이요, 때로는 무가치함과 도덕적 실패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서사가 역사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느끼는 SR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묘사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성격의 유형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실패의 예입니다. 드라이버에게는 그 이야기들이 구속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여부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종교적, 도덕적 교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시적이거나 예시적인 사용입니다.

그러나 그가 잃어버린 것은 구속사에서 그러한 사건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점입니다. 드라이버의 믿음은 실제로 역사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지만 진정한 성경적 믿음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설교가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와 정말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구약 시대의 역사를 암송하거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일으키시며, 메시아 오심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것은 구속적 역사 설교이다.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적이고 구속적인 방식으로 일하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구약의 역사적 이야기에 대한 설교는 구원적인 역사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시적이거나 예시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사적 맥락이 어떤 것이 예시적이거나 예시적일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어떤 예시적이거나 예시적인 의미 만을 본다면, 당신은 애초에 이 이야기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차원을 상실한 것입니다. 서술형 본문의 예를 들어 교리적 본문을 설명할 수 있지만, 설교를 위해 서술형 본문을 선택한다면 그 내용을 온전하고 구속사에서 특정한 위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예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며, 구속사의 이러한 진보와 움직임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한 관점이 내러티브 텍스트에 대한 설교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역사적 서술의 경우 다른 것보다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는 현재 진행 중인 구속 역사의 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습니까? 많은 노력과 생각이 필요한 일이지만, 노력하고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본문을 사용하여 교리 설명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엘리야 이야기로 돌아가서 구속적 역사적 관점이 이러한 엘리야 이야기 중 일부의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조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특정 사건이나 서술적 본문으로 교리적 본문을 설명할 수 있지만, 서술적 본문을 선택한다면 그 내용을 온전하고 구속사에서 특정한 위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시적으로, 설명적인 텍스트로 교리적인 텍스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의 예를 들어 교리적인 본문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출처의 그림을 사용하는 것보다 성경 본문을

그림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고유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맥락을 유지하지 않으면 온갖 종류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서사적 텍스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서술형 텍스트를 다른 종류의 텍스트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 본문, 시적 본문, 잠언, 교훈적 본문, 교리적 본문이 있습니다. 내러티브에 접근하면,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러티브가 있는 이유는 성경적 믿음이 역사에서 일어난 일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적 텍스트는 역사상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드라이버에 관한 한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유든 동화든 뭐든지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뿌리를 둘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는 그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엔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이 “우화”에 묘사된 믿음의 종류와 더 실존적인 종류의 동일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뿌리를 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야기 본문, 특히 구약의 이야기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아마도 95%의 시간이 설명적이고 예시적인 것일 것이며 구속사의 움직임에 대한 더 큰 관점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Rebecca Brule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